

분단은 통일로, 갈등은 평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20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며-

주님의 평화!
오늘(2월 26일)로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 19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 방역과 환자 치료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한국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국가와 공동체가 하루속히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원할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마음모아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길고 긴 시간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분단이 종식되어 통일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간절함 만큼이나 북-미, 남-북의 만남과 대화에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통일과 평화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에서는
다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순절 묵상글을 준비했습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 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입니다.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재를 이마에 바르며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는 우리의 유한함과 존재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에서는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대로,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의 선포로 말입니다.
그러면 분단은 통일로, 갈등은 평화로 돌아가는 것, 아니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자원한 목회자들이 묵상글을 준비하였습니다.
간혹 오타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표현도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나 묵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에 바빴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염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빈 공간은 여러분이 기도와 깊은 묵상으로 채워주셨으면 바랍니다.
이 묵상글이 개인, 소그룹 여러 곳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일터 학교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 일

2020년 2월 26일(수)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말씀 묵상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마 5:23-24 개역개정)

창세기는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덴 이후에 태어난 첫 사람 가인은 형제 살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고 갈등했고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갈등 이야기만 전하지 않고 화해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며 화해했고, 에서와 야곱도 브니엘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과 형제들도 수 많은 인생의 시련을 거치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용납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남과 북은 아직도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갈등 중에 있습니다. 군사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혹 화해를 위한 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긴 역사와 비교할 때 잠깐 숨을 쉬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껏 기대가 부풀었지만 아직 남북은 전쟁 상태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로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국군, 북한군, 미군 1554명이 사망하였습니다.(경향신문 2010년 11월 17일) 남과 북이 오랜 갈등을 끝내고 화해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화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핵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나 자매를 보고 성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열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 21-22) 이어서 예수님은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해를 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참된 제사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합니다. 형제 자매와 불화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방해합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한 후라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제 화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화’의 세상을 ‘화해’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예수님께서 형제 사이의 화해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형제나 자매와 화해를 '먼저'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오늘 저는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화해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일

2020년 2월 27일(목)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말씀 묵상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사야 61:1-2 새번역)

오늘 아침 묵상은 야구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야구팀 팬이신가요?” 혹여 야구팬이 아니고 야구 룰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에 연고를 둔 야구팀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내셔널리그 챔피언과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이 붙는 월드시리즈에 온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투수의 공 하나에, 타자의 안타 하나에 기뻐하기도 하고, 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 하나로 전 세계의 야구 팬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보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Bottom of the ninth, down by three, bases loaded, two outs full count. No fear!” 번역하면 “9회말, 석점 뒤지지만, 투아웃 주자는 만루, 2스트라이크 3볼 풀 카운트,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말라”입니다. 즉 지금은 9회말 2아웃, 석점차로 뒤지고 있지만 홈런 한방이면 순식간에 역전 할 기회가 있으니 좌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야구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럴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주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구세주가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0년간의 분단으로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통일을 위한 많은 시도와 만남이 있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의 다름이 남남갈등이 되었습니다. 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 이후,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9회말, 투아웃, 풀 카운트”같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절망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한반도에도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기 위한 통일의 희망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를 무엇일까요?
2. 가장 늦은 통일이지만 가장 멋진 통일을 만들기 위해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한반도의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통일을 향한 많은 외침과 만남이 있었지만 한 낮의 구름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이루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일

2020년 2월 28일(금)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을 걷는 사람

말씀 묵상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7-8 개역개정)

중국 북산에 우공(愚公: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90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 앞과 뒤를 큰 두개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저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서 다니기에 편할 것이다.” 다음날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손자와 함께 지게에 흙을 저다가 바다에 내다버리면서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이 “얼마 멀지 않아 죽을 사람이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비웃자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 할 것이요,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러자 두 산을 지키던 산신령들이 노인의 말을 듣고 큰일났다고 여겨 즉시 옥황상제에게 달려가서 산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제는 두 산을 멀리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우공이산(愚公移山)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공이산의 정신을 성경의 덕목으로 바꾸자면 신실함(忠성, Faithfulness)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되는 순탄한 길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부신 선교의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허망하게 도시를 떠나기도 했고, 적대자들에게 쫓기다 붙잡혀 매를 맞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눈 팔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가야 할 길을 걷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강대국들의 입장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이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인 셈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단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야 할 길이기엔 걷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기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 가야할 사명이 있으십니까?
2.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상을, 어떤 칭찬을 받고 받으시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사순절 아침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짧디 짧은 70년의 헤어짐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했고 너무나 많이 아파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평화할 때라!”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맘속에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일

2020년 2월 29일(토)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묵상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도행전 10:9-16, 23-29 개역개정)

모니카 마시아스라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적도 기니라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쿠데타의 위험을 피해서 세 자녀를 당시 친분이 있던 김일성 주석에게 보냈습니다. 7살이던 1978년 평양으로 온 그녀는 아버지가 암살됐다는 소식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북한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20대까지 평양에서 살게 되고 이후 30대에는 한국에서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양과 서울 억양이 섞인 우리 말을 사용합니다.

두 나라를 다 살아본 모니카에게 남한과 북한은 체제는 달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중국 사람과 북한 사람은 같아 보어도 사고방식이 다른 반면 북한과 한국은 사고방식, 성격, 음식, 도시의 냄새까지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과 미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 그 편견을 깬다. 한국에 왔을 때 마주 오던 승용차가 신호도 주지 않고 그냥 들어오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야 이놈, 이 새끼야!”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니카는 남북이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데 서로를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 속에 있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지만 속되고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후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사람들과 만난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하던 것이 불법이던 시절,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속되고 부정하다는 생각은 만나고 나서야 허물어집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니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남과 북은 얼마나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선 자주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주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들을 허물고 넓히는 과정이라면 남과 북은 지금 우리가 허물어야 할 가장 큰 울타리인지도 모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잘 안다고 생각해 온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잘 알고 있을까요? 주위의 한 사람을 정해 생각해 봅시다.
2. 나는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지식은 정확한 걸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저도 모르게 선을 긋고 구별하던 이들은 누구였는지요? 북한의 동포들에 대해 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요? 내가 관찮다고 한 것을 왜 그렇게 가르고 구별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봅시다. 제가 미워하던 사람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북한의 동포들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일

2020년 3월 2일(월)

참 예언자 VS. 거짓 예언자

말씀 묵상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모스 7:10-17 중에서 16 절 개역개정)

전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공유와 정치적 입장 표현이 더 자유롭게 확산되는 때에, 역시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확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온전히 행동하기 위해서는 더 큰 책임과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성경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투쟁을 보여주며 잘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한 신앙적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가리키는 영어 ‘프라핏’ (prophet)은 헬라어 ‘프로페테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프로’라는 접두어에 ‘말하는 자’란 뜻의 ‘페테스’가 합성된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꿰뚫어 보고 말하는 자’이고, 공간적으로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란 뜻의 ‘나비’도 수동적으로 쓰일 때 ‘부름 받은 자’란 뜻을, 능동적으로 ‘부르는 자, 선포하는 자’란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앞날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자’이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와 아모스가 바로 그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마샤와 같은 제도권의 예언자들은 성전의 제사장 출신이나 선지학교 출신이었던 반면에, 아모스는 양을 치고 뽕잎을 가꾸던 하층민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예언이 정 반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중 한 사람은 ‘참 예언자’였고, 또 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먼저 ‘무엇에 붙들려 있는 자가 참된 예언자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체제의 변화를 원치 않던 기득권과 여론의 편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서슬 퍼런 공권력과 왕의 권위, 제도 교회의 권위가 무섭고 부담스러웠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앞에 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하는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기에 잘 될 것이라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계약 백성의 의무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약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세속적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면, 아모스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만족을 지키실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모스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실 수도 있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세속 정권이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이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세상의 권력과 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아마샤는 사람이 원하는 선포, 권력이 원하는 선포에 치중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장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남북의 반목과 북미의 참여한 갈등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예언자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눈을, 세상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심장을 지니고,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예언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성경이 전하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오늘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내가 참 예언자의 눈과 심장을 소유하기 위해 무엇을 갖추고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거짓 예언이 난무하는, 가짜 뉴스가 지배하는 세상의 한 가운데서 예언자의 눈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세상의 한 가운데서 담대히 심판과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일

2020년 3월 3일 (화)

칼과 창을 쟁기 만들어

말씀 묵상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4-5 개역개정)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현실을 살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목전에 들이닥친 앗시리아의 위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든 무기를 놓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이런 날에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주님의 성전이 높이 솟을 것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성전에 올라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를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드러난 주님의 길은 화해와 평화의 길입니다.

그 날이 되면 더 큰 칼과 더 강한 창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껏 정복하고 빼앗아도 좋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높이 솟은 성전에서 배우고 따르는 주님의 길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도 아닙니다. 칼은 보습이 되고, 창은 낫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가고 그 날이 오면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사라지고, 그러면 힘 썩 나라들의 분쟁 때문에 어느 민족이 고난을 겪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죽이고 위협하는데 쓰이는 쇠붙이들은 농사하고 먹여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현실을 살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나긴 분단의 세월, 여전히 요원한 평화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신 당신 마음 뜻은 평화이고 화해입니다. 민족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 아직 아슬한 평화의 빛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오너라,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하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영혼과 교회, 지역 공동체와 민족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기다립니다. 그 불길은 총과 미사일을 녹여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미워하고 죽이지 않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가면 세계 60 개 분쟁지역에서 거두어 모은 탄피 1 만관 (37.5 톤) 으로 만든 평화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보니, 그 종이 한 번 크게 울려보고 싶습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한없이 늘어나는 군사비와 첨단 무기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2. 성령이 불로 녹여내야 할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칼과 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주여, 거룩한 성전에서 가르치신, 평화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군사 훈련이 필요 없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소서. 칼과 창을 만들던 노력과 자원을,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로 그 희망과 소원을 잃지 않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일

2020년 3월 4일(수)

통일은 치유입니다.

말씀 묵상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1:23-27 개역개정)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 되자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침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가버나움 회당 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회당 밖으로 내보내지도,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조용히 하라' 나서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가족들과 온 동네 사람들은 골치를 썩었을 것 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전우택 교수는 분단과 6.25로 인한 상처를 사회적 트라우마로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民族)공동체, '공간(空間)공동체' '이성(理性)공동체' 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이, 극단적 이념주의에 집착하여 갈등 해결 능력도 없이 살아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우택 교수는 분단을 새로운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즉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고 붕괴 이전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인류의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면서 그러기에 “통일은 치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우택, 통일은 치유다 :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다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치유이자 회당 공동체의 치유입니다. 더러운 귀신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영토의 통합과 분단의 해결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수십년 동안 지고 살았던 '분단이라는 더러운 귀신'에서 놓여나는 치유입니다. 휴전선이 거둬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낙인이 사라지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 한민족이 거듭날 수 있기를 두 손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일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을 읽으며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2.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한반도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권위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상처는 너무 깊고 깊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치유의 과정이 되게 하소서. 분단이라는 상처를 밟고 일어난 한민족이 다시 세계 민족의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치유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일

2020년 3월 5일(목)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말씀 묵상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17-18, 21 개역개정)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번 짚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버스나 공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 백인과 흑인 전용칸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흑백분리 정책에 항거하던 많은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인종주의자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의 원칙아래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어 마침내 1965년 투표권과 참정권을 포함하여 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그들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이에게 당한 아픔과 고통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 정세의 측면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 보입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아래 군비 경쟁에 나서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 경쟁이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 서로 간의 긴장을 증가시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아래 온 세계의 시민들은 전쟁의 일촉즉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국방력이 얼마가 되니 우리도 그 만큼의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0년간 남북의 군비 경쟁의 결과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긴장 증가만을 낳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위해 크리스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어떻게 한반도에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대로 이 한반도에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평화의 한반도를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일

2020년 3월 6일(금)

두려움을 넘어서서

말씀 묵상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세기 33:4 개역개정)

오늘 묵상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2 장에서의 야곱의 심리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20 년의 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 한명의 아들과 두 아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계산이 빨랐고, 절대 손해를 보는 법이 없던,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압복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알아보게 했는데, 형이 400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전갈을 받습니다. 분노에 가득차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의 모습을 그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형 에서는 그렇게 몸을 얼어붙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잔꾀를 부립니다. 자신이 평생도록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의 거의 3 분지 2 를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일종의 뇌물 공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가족들을 보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겨지자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으로 어찌할바를 모르던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생각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이 얻어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름은 정체성(Identity)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 이라 명명하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생을 자기의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싸워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부터 했던 야곱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압복 강을 건너가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따라다녔던 두려움의 존재,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말도 있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화적인 이질감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실체를 다시 보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화해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연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남한과 북한이 한 형제됨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상상해 볼 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2.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당신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서로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일

2020년 3월 7일(토)

정신의 출애굽

말씀 묵상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10-14 개역개정)

열 번의 재앙 끝에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해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도망친 노예들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섬기던 이전의 삶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은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서 들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과거를 잊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정신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기회를 놓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민족끼리 두 편으로 갈려서 전쟁을 치르고 분단이 되어 7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사느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신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흥해를 앞에 두고 대립하고 있는 바로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21세기 한반도의 상황과 겹쳐지는 것은 과도한 상상일까요? 강대국들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약소국임을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는 분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때로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 분단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굳은 생각들일지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지금 이대로가 좋다면 안주하려는 마음,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는 마음, 냉전적이고 호전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이미 특정한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정신적으로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영역이 내 삶에 있을까요?
2.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굳은 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 민족에게 정신의 출애굽을 허락하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굳은 생각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아멘.

11 일

2020년 3월 9일(월)

베데스다의 법칙 VS. 예수님의 법칙

말씀 묵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8-9 개역개정)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마도 3-4 월의 부름절이거나 아니면 유월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하튼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흠어져 살던 곳에서 거의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의 불야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잔치 마당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잔치의 그늘에 숨어있는 사람들, 특별히 38 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법칙’과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낫고 싶어도 나을 수 없었던 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연못에 뛰어들기만 하면 낫는데, 이 환자는 연못에 뛰어들 수가 없었죠. 병약한 그를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칠 때 가장 먼저 딱 한 사람만이 그 연못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법칙입니다. 가장 앞선 사람만이 기회를 누리는 세상의 가혹한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걸려 헤어지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정말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한 마디로 그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먼저 나서는 한 사람만이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무한경쟁의 그물망을 한순간에 해체해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위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당당한 믿음의 주체로 살아가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인습적 지혜와 제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인습적 지혜는 어느 사회나 공동체의 물려받은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며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은 바로 이런 세상의 인습적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뛰어넘는 대안적인 길, 바로 그 전통을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능력을 갖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법칙에 압도돼, 나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라!”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법칙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법칙을 따르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사랑의 주님, 때론 내가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도태된 실패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끊임없이 낫고 천한 자를 위해 다가오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법칙에, 우리를 규정하는 분열의 시스템에 압도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삶의 중심을 찾는 용기를 갖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38 년 병자에게도, 반세기 지난 한반도의 문제 앞에서도 베데스다의 법칙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칙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누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 일

2020년 3월 10일(화)

둘을 한 몸으로

말씀 묵상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14-16 개역개정)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들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871년에 발견된 라틴어 비문에, 이방 사람들이 성전 내의 경계선을 넘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써 있을 정도로 이 경계는 철저하고 완강합니다. “우리”와 “당신들”로 나뉘어진 무리는 만나거나 섞일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고 말해 줍니다. 원수 된 것을 없애셨고, ‘우리’와 ‘너희’로 나뉜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은 하나이기에, 누구도 거기에 금을 긋고 경계를 지어 나의 하늘과 당신의 하늘을 구분지을 수 없기에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신학자 C.S. Song의 말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경계를 가로지르는 일” Crossing the Border 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철저하고 완강하게만 보였던 담을, 두 지도자는 마치 아이들 줄넘기 놀이를 하듯 수월히 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금방이라도 큰 일이 성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길었던 만큼 하나가 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조국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원합니다.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없애고 화해하여 한 몸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사람들에게 모두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한반도에 평화가 임한다면 세상의 많은 민족이 화해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먼 곳까지 평화가 전해 질 것입니다. 성령안에 우리 모두는 외국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한 가족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이웃간에 담장이 높아지고, 경계 Border 가 더욱 철저해 지는 것은 왜 일까요?
2.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은혜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소서. 교회를 당신의 참된 몸 되게 하사,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높고 두꺼운 담을 허물게 하소서. 한반도에 허락하실 화해와 통일의 역사를 통해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평화의 길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일

2020년 3월 11일(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말씀 묵상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11-13 새번역)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이삭을 선택하시는 특징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듭니다. 우리 상식으로 장자권을 주어야 한다면 에서가 선택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속권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나 육체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음의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라면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하게 만드신 것이니 어찌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19-21 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 바울은 인간의 주제 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인 인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남북 통일을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신학적-신앙적 가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쪽 교회에서는 '남한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으로, '북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에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가난하며 남한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부유해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도바울께서 가르치신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개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미 보았듯이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지라도 그것은 그가 에서보다 의롭거나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결코 우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온 북의 동포들을 짐을 나눠지고, 사랑에 빛진자의 심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새길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화해와 용서의 마음 그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나는 소외된 이들 특히 북의 동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나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월의식이나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빛진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위에 올바른 역사 의식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 일

2020년 3월 12일(목)

우리는 모두 화해의 직분을 받을 자들입니다.

말씀 묵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8 개역개정)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점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이 맡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즉 화해하는 직분은 바로 싸움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서로의 감정 또는 분쟁을 풀 수 있도록 양보하게 하고 그 싸움과 분쟁을 끝내는 직분입니다. 어떤 싸움과 분쟁을 모른 척 하고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한국교회를 가르쳤던 서정민 교수가 첫 수업시간에 했던 말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또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가 잘 못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이 땅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 역사 속에서 있는 아픔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아직도 우리의 조국은 분단이라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분단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갈등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되게 하며, 분단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역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자로 부름 받은 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화해의 직분 맡은 자로서, 오늘 아침 분단된 조국의 화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내 안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은 어떤 모습입니까?
2. 어떻게 우리가 “화해의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오늘 아침 이 땅의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이 맡겨졌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싸움과 분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기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해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 일

2020년 3월 13일(금)

더 보이는 만큼, 장벽은 깰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 1-3 개역개정)

한달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 개의 트로피를 품으며 제 92 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 자리를 꿰찼습니다. 특별히 비(非)영어 영화로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계가 놀랐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약 2 달 전에는 할리우드 영화 기자들의 투표로 골든 글러브 시상식이 열리는데, 그때에도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자막의 장벽은 장벽도 아니다. 1 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며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만을 고집하는 미국 문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 달 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 뉴욕타임즈와 LA 타임즈 모두 “장벽을 깰 승리”라는 제목으로 1 면을 장식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보이는 만큼, 장벽은 깰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의지한 3 차원의 세계 안에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3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보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안목들이 믿음의 눈을 통해 생겨납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에 늘 주눅 듭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고, 큰 저택에 초대 받아 가도 주눅 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머리 돌 곳도 없으셨지만, 그 시대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조금도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은 이렇게 눈 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통일된 조국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통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가실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다면, 그만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보이는 만큼, 장벽은 깰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2.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사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갈등에서 화해를, 전쟁에서 평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 일

2020년 3월 14일(토)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 묵상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사무엘하 2:26-28 새번역)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후 양쪽의 아브넬과 요압 장군이 전투를 벌입니다. 양쪽을 대표해 겨뤘던 젊은이들은 모두 함께 쓰러져 죽습니다. 이후 싸움은 치열하게 번져 나갔고 결국 요압이 아브넬의 군대에 승리를 거둡니다. 아브넬은 도망치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뒤를 추격합니다.

아브넬은 그만 뒤쫓고 돌아가라고 타이르지만 아사헬은 추격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게 되고 이번에는 요압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날이 저물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26) 아브넬의 말에 공감한 요압은 나팔을 불어 모든 군인을 멈추게 하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싸움은 그제서야 끝이 납니다.

이 상황은 마치 70년 가까이 남과 북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아브넬의 말은 그런 우리 조국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은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도 분단된 상황 때문에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야 했고 막대한 세금을 군비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해 오고 가는 말들은 우리가 잠시 전쟁을 쉬고 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무뎠어졌을 뿐이지 남과 북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전 중에도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스러져 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걸까요? 이런 싸움이 남과 북에 서로 피해를 입히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걸까요? 누군가는 먼저 싸움을 멈추자는 제안을 해야 하고, 평화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싸움 안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를 죽여야 하는 야만이 서로를 몰아갈 뿐입니다. 우선 싸움을 멈춰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보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경험을 했나요?
2. 남과 북이 대립을 멈추기 위한 제스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이 오래된 싸움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싸우는 것은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일 뿐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도록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평화의 나팔을 불게 하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싸움이 아니라 화해를 선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 일

2020년 3월 16일(월)

십자가 – 미련한 능력

말씀 묵상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18 개역개정)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란 이유는 이 십자가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두 가지 뜻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 말하면서, 또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지닌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래서 잊고 살았던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했던 분들을 떠올려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돈 많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단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그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언젠가 한국의 신문에서 안경선 목사님에 관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를 사귀려고 찾아간 교회에서 종교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수 애향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한국 전쟁 때 총살당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사랑의 원자탄’이란 영화였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손으로 씻어주며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분이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추종 학생들에 의해 당시 10대였던 자신의 두 아들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였던 주범이 잡혀 총살당하기 직전 손양원 목사님은 형장으로 달려가 고등학생에 불과했던 이 아이를 탄원하고 살려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입양합니다. 그 영화 장면을 보며 안경선 목사님은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 펄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 자신의 아버지가 48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되었던 안 목사님은 아버지의 빈소를 찾아온 분이 전한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을 읽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하고 총살형에 처했다가 손 목사님에 의해 구명돼 그의 양아들이 되었던 안재선 씨임을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손 목사님이 공산군에 의해 살해된 이후 피난 온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살인자인 자신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주홍글씨의 죄의식에 방황하며 신학을 그만두고, 원래의 성씨인 안 씨를 사용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평소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아들에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 목사님은 원수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좇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가장 약할 때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거룩한 바보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역설은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힘을 지니길 원하는 사람들에게겐 이처럼 미련한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나도 받아들여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바울이 십자가를 ‘미려한 능력’ 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오늘 내가 미련하지만, 사랑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사랑의 주님,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갈등의 시대에 나약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오늘 나도 그 미려한 능력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 일

2020년 3월 17일(화)

참된 평화

말씀 묵상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34 개역개정)

평화의 왕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그분이 오셨다니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도 비슷한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 오셨다고, 가족들은 둘 셋씩 나뉘어져 맞설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100년전, 조선 땅의 현실을 뒤집어 보려고 3월 1일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행 17:6) 말이지요. 가짜 평화를 몰아내고 참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는 늘 이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박완서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이 본문에 대해 “불의 와 타협해서 얻은 평화는 죽음이나 다름 없는 굴종 뿐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가짜 평화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소수의 사람들과 민족에게 제한된 평화였고, 그들이 자기들만의 평화를 누리는 동안 어딘가에는 빼앗기고 괴롭힘 당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하는 칼과 불이 필요하셨습니다.

한반도가 향하는 평화의 길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격렬하게 맞서며, 심지어 가족 안에도 “통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논쟁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참 평화의 길에 ‘견뎌내야 하는 갈등’ 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라면요.

예수님은 참 평화의 길에 ‘의로운 투쟁’ 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이웃과 가족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참 평화의 길로 용기있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 오늘 날, 검과 불로 물리쳐야 하는 가짜 평화는 어떤 것들인가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여,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소서. 눈에 보이는, 우리만의 안녕과 번영에 현혹되기 보다 하나님의 이웃들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을 간직하게 하시되, 참 평화의 길을 향하는 지혜와 용기를 늘 허락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 일

2020년 3월 18일(수)

용서가 약해 보이지만...

말씀 묵상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4:16 - 19 개역개정)

고대 이스라엘은 두 번 분열되었습니다. 첫 분열은 다윗에 의해 통일되었으나, 그 뒤 기원전 930 년경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은 갈등으로 민족 역량을 소진시키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 차 분열을 극복한 주인공은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보여준 관용과 용서의 정신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린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산악과 광야를 헤매며 동굴을 처소로 삼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3 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을 때입니다. 그가 혼자 다윗이 머무는 동굴에 들어오자 다윗의 측근들은 이때야말로 복수할 기회라고 충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뒤에 다윗의 관용을 알게 된 사울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시 3 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체포하려 나섰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과 수행원은 사울 일행이 잠든 틈을 타 그들의 야영지를 기습하여 복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머리맡에 둔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고 왕의 생명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보복 대신 용서와 관용으로 그를 일깨웠습니다. 남북이 화해할 때 배워야 할 용서의 정신입니다.

이해동 목사(평화박물관 이사장, 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아버지는 전국 청년조직인 대동청년단 해남군 지부 부단장이었고, 어머니는 대한부인회 황산면 지부 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좌익 편에서 보면 눈엣가시였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 인민군이 빠져나갔고 우리가 살던 곳은 또 한 번 진공상태가 됐습니다. 좌익 사람들이 우익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잡혀가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아버지께서 사살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알이 아버지의 왼쪽 등에서 비스듬히 왼쪽 겨드랑 밑으로 관통했고, 칼은 오른쪽 등을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뜻밖에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오랫동안 좌익세력에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우리 가족이 겪은 악몽 같은 상처를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민족적 차원의 화해를 이뤄야 합니다. 이 길만이 민족의 비극을 극복하고 분단 현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민일보 2017-08-07 요약)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 속에서 복수를 원할 경우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용서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관대한 행동이라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화해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며 이는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용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력과 보복’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2. 사울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의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저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시기하고 미움을 풀지 못하고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저희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역시 다윗처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 일

2020년 3월 19일(목)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위세를 떨치던 시대였습니다. 즉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시대였습니다.

말씀 묵상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15 새번역)

이 “로마에 의한 평화”는 로마의 지배 계급에게는 태평성대의 시기였지만, 로마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소수 로마의 지배계급만을 위한 가짜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힘의 논리였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 다른 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로마의 가짜 평화에 반대하여 “팍스 크리스티”(Pax Christi –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 3:15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εἰρήνη του χριστου*(에이레네 투 크리스투)”가 라틴어 “팍스 크리스티”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가짜의 평화가 아니라 이사야 11:6-8 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의 세계 또한 강대국이 가진 힘의 논리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반도도 군비 증강과 핵 보유라는 힘의 논리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팍스 로마나”가 아닌 “에이레네 투 크리스투”를 의지해 진정한 평화를 갖기를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 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젓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 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11:6-8)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짜 평화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2. 한반도의 펼쳐질 평화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 일

2020년 3월 20일(금)

민족을 생각하는 절절함

말씀 묵상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 4-5 개역개정)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를 빼앗긴 채, 포로로 끌려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 3 세였습니다. 우리처럼 미국에 살면서 이민 3 세대쯤 되면, 한국말을 잘하는 3 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울며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기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준 사람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 기도를 시작할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서 고생하고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호화로운 궁궐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하루하루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민족, 동포들을 사랑하는 그 가슴 절절한 마음 때문에 그는 너무나 아팠고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운데서 떨고 있는 수 백명의 고통의 무게가 내가 누워 있는 침대의 이불보다 무겁지 않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남의 큰 고통보다 내 작은 기쁨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대상과 범위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허리가 잘린 채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 버린 분단된 조국을 생각하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애달픔을 마음 절절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된 조국이 아픔으로 다가와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지금 우리의 조국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이 느헤미야라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어쩌면 구태여 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될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은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 일

2020년 3월 21일(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3 개역개정)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들이 짧은 시간 감격의 만남을 가집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곧 헤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손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짙게 베어 있습니다. 한 평생을 헤어져 살다가 만났는데 그렇게 속절없이 다시 이별입니다. 가족인데,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

시인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에서와 아돔은 큰 아들의 권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남의 나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현실에서도 형제간, 가족간의 불화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신앙에 눈을 뜨면 피는 섞이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누르고 지배합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테러 같은 치명적인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남과 북은 분명히 형제인데 함께 어울려서 살지 못했습니다. 남처럼, 적처럼 생각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는 형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아름답고 즐겁다고 감탄한 시인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영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이 아름답다고 합니다(2). 기름이 온 몸을 적시고 이슬이 산들을 뒤덮는 생명의 충만한 장면을 시인은 상상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일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계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시적인 상상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세상을 꿈꿔 보는 것입니다. 시인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3).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식구들, 이웃들, 북의 형제자매들, 세계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내 형제자매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언제 그 관계가 아름답다고 느꼈나요?
2.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지금 남과 북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시인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깨닫고 연합의 삶에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 일

2020년 3월 23일(월)

파수꾼의 시선

말씀 묵상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 33:1-9 중에서 7 절 개역개정)

2 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불리던 맥아더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처럼 경계를 서는 파수꾼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알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파수꾼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앙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언제나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 가운데 깨닫고 삶의 깊은 차원에서 그 분과 만나고 본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자신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자신 안에서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투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는 지혜자로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새 새벽이 조금씩 전보다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새벽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우물을 파는 소중한 영성의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혼의 생수에서 우물을 길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그 성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언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예언의 대상, 보호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크게는 우리의 고국과 미국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자라면 그가 악인이던 선인이던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파수의 1 차적 책임이 파수꾼 자신에게 있다면 2 차적 책임은 공동체의 구성원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공동체의 회중, 가족 구성원, 지역 주민들, 국민들 등등...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그들에게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들은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라면 진정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협 요소는 바로 나 자신에 있는 영적 무지입니다. 또한 우리 안의 무관심과 공동체에 대한 냉소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예언자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위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위협 앞에 항상 깨어 파수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책무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이 파수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미국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근본적인 위협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절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를 향해 깨어있을 때,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협 앞에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 일

2020년 3월 24일(화)

성전에서 시작되는 물길

말씀 묵상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에스겔 47:1 개역개정)

오랜 포로생활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늘로부터 온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전에도 몇 번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는 그리도 그리워하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에는 곳곳에 종려 나무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41 장 18,20,25,26 절) 혼탁하던 시절 사사 드보라가 그 아래에서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렸다는 그 나무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흔들던 그 나무가지입니다.

사라진 평화, 무너진 정의의 세상에서 백성들은 골짜기 한 가득 마른 뼈가 되어 갑니다(에스겔 37:1). 성령의 숨 없이는 살아 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새어 나옵니다. 그 물은 자연스레 동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아서 서로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지혜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1,000 자를 따라가 그 깊이를 재어 보니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500m 정도 되는 물길이 고작 발목 깊이인 것입니다. 다시 500m 를 가면 무릎에 이르고 2km 를 따라 걸어야 성전으로 부터 시작된 물은 강이 됩니다.

종려나무 그려진 벽 사이로 시작된 평화와 정의의 물결은 작고 소리없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 물길이 바위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유유히 돌아 새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더 낮은 땅을 만나면 그곳 채우고 다시 전진하였겠지요. 결국 작은 개울은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변에 자라난 나무 열매들이 만국을 치유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회복하고 평화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도 여러 바위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생각보다 더 멀리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발원한 물길 (12 절) 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함께 흐르지 않으시렵니까?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평화의 물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2. 물줄기가 강물이 될 때까지 1 마일이 넘는 거리(4 천척) 를 걸으며 에스겔은 무슨 생각과 기도를 하였을까요? 정의와 평화의 물길을 쫓아 걸으며 우리는 무슨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전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낮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흐르게 하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소로부터 흐르는 끊임없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의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자라난 나무 열매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 일

2020년 3월 25일(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 묵상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1-13 개역개정)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 1990년대 북은 '고난의 행군'을 했고 남에 사는 우리는 너무 무거운 통일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불편한 통일 대신 지금 이대로 편한 분단'을 선택하겠다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 또 한번의 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성큼 실현될 듯한 큰 기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탓 일까요? 그 이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북-미 관계에 또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분명 우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남과 북의 분단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었던 남과 북, 열강들이 각축을 벌였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기대와 실망,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시소게임 같았습니다. 그나마 큰 성과라면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대화한 것,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를 이루려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통일을 추구하는 자와 방해하는 자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보였으나 이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듯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고전 13:11-12).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통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떡 먹여주듯이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의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시는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서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반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도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2.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바울의 말씀을 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문을 만들어보십시오.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남과 북의 동포들을 사랑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깨끗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 일

2020년 3월 26일(목)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 묵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26-27 새번역)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첼렘(צֶלֶם)”과 “데무트(דְמוּת)”가 사용됩니다. 첼렘(צֶלֶם)은 사람 혹은 동물의 모양에 따라 조각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 ‘자르다’라는 동사에 유래되었으며, “데무트(דְמוּת)”는 ‘닮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어 ‘비슷한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조각되어졌으며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류는 욕심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조, 생명, 평화가 아닌, 내전과 다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반도 또한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생명,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 생명, 평화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내 삶 속에 있는 차별과 혐오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한반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차별과 혐오, 전쟁과 분단의 모습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 생명, 평화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 일

2020년 3월 27일(금)

사람이 먼저다

말씀 묵상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어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8: 28-34 개역개정)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나병환자, 로마군 장교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 호수의 끔찍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땅이라 불리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는지 24 절에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굳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찾아간 가다라 마을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 무덤에서 사는 두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격리된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다라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돼지 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돼지는 그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신약 교수님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돼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인상깊게 알려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돼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음식이고 수입의 원천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금지했지만, 그들은 당장의 먹을 것을 위해, 그리고 그 돼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돼지는 농산물의 축복을 기원하는 종교 의식에서 중요한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에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 알려진 바알을 위한 예식에 그들의 돼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돼지는 가다라 마을이 속한 데가볼리 지역(오늘날의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심볼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군대는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세속적인 힘과 권력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다라 마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마을에서 추방시켰지만, 사실은 그들 역시 경제적인 이윤과 종교적인 이상숭배와 군사적인 힘에 의지하던 귀신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가다라 마을은 도시 전체가 귀신 들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떼를 죽이면서까지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킨 예수님을 그들은 마을에서 떠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저마다의 계산적인 셈법으로만 한반도를 대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어서 빨리 만나야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인적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그곳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부터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지금 우리의 조국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이 느헤미야라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 저마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사람의 가치보다 우선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하염없이 기다림에 지쳐 있는 이산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건 없는 지속 가능한 만남들이 속히 오도록 인도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28 일

2020년 3월 28일(토)

진심과 진심이 만나면

말씀 묵상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여호수아 22:21-31 개역개정)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연속해서 만나는 장면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분단의 선을 넘어와 남한의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대신 새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던 그 평화로운 장면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 대화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했던 양쪽의 대화는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가운데 진심을 나누는 일은 때로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 같은 분위기는 어느새 가라앉고 다시 끊어진 대화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리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단 강 동편으로 이주하던 지파들은 후손들을 위해 서쪽 지역의 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안 본토의 지파들은 이들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본토의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에 대항해 싸우려고 모입니다. 하지만 대표들이 찾아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됩니다. 양쪽 진영이 화해에 이르는 모습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 본토 지파의 대표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과 함께 자신들의 우려를 전달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요단 강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표들을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라고 존중해 부릅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화해를 시도합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본래의 동기와 목적을 자세하게, 설득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들의 말을 모두 들은 대표단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은 동편 지파의 설명을 그대로 믿어주었고 오히려 이들을 칭찬합니다. 비느하스는 함께 나눈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면 풀어지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진심과 진심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공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만큼 서로 간의 불신의 골이 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느하스의 고백이 남과 북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을 오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신뢰를 가지고 들어 주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치공학적 해결보다 진심을 나누는 대화가 더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한 대화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2. 남과 북이 만나 진심과 진심을 나누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남과 북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아멘.

29 일

2020년 3월 30일(월)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묵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3-18 중에서 18 절 개역개정)

자신의제국이 영원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워 제국을 영원히 지속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신상에 대한 낙성식을 거행하며 인종과 나라, 언어가 다른 제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왕의 시도는 포로 출신의 젊은 엘리트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바로 지방장관으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입니다.

왕은 일말의 문제제기와 저항도 용납하지 않으며 법을 제정해 “누구든지 앞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왕의 회유와 협박 앞에 섰던 그들의 고백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16-17 절)

이 고백에 담긴 세 친구의 믿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적 개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이들의 믿음은 맹렬히 타는 왕의 분노의 행위 앞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으리라 현실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 너머 존재하는 역사와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더불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18 절)

현실적으로 지금 개입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저항이 역사적으로 무의미하지 않고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자신들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보장되리라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적 개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은 결국에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제국의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적 현실 앞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하시다는 철저하고 위대한 고백이, 지금 세 청년들의 입을 통해 제국의 황제와 신민들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제국은 존재합니다. 자유경쟁, 무한경쟁의 기치 아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부와 권력과 행복을 영속화시키고, 경쟁에서 낙오해 시장의 지배력을 상실한 개인과 공동체는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잔혹한 신자유주의 세계관도 이 시대의 제국입니다. 국경 없는 시장이라는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는 세계인의 생존권 보장과 인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무한 이익을 위해 무한한 힘을 발휘하며, 이에 맞서는 대안적 체제와 삶을 추구하는 개인과 국가를 강압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을 경우 징벌하겠다’고 선언할 뿐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지러워도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속에서도 교회만은 여전히 제국의 우상숭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전당이고, 제국의 주권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실망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신앙의 고백과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록 제국의 박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신앙의 열정을 통한 고난의 훈련은 나 자신뿐 아니라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택한 믿음의 저항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신앙적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 오늘 나에게 고개를 숙이라 명 하는 이 시대의 금 신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청년들의 고백에서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이 시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제국의 위협과 금신상의 유혹 앞에서 '아니오!'라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30 일

2020년 3월 31일(화)

다니엘의 기도

말씀 묵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 9장 4,5 개역개정)

다니엘은 이제 좀 살만 합니다. 탁월한 용모나 능력 뿐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인성과 도덕성까지 검증을 받았으니 초강대국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니엘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그런데 이 잘 나가는 다니엘이 베옷을 입은 채 잣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점령국으로 이주하여 “바벨론 드림”을 이루었지만, 이 젊은이의 마음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나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것(로마서 12장 15절) 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워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늘 뜻을 잊고 살았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반역하며 평화의 명령을 떠나 살았습니다.” 기도는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과 당신의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황폐해진 건물과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소서. 지체 마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풀무불에서 걸어나왔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였나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사무엘상 16:7) 이라면, 주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눈물과 기도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의 몸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만 풍요롭고 잘나간다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공과 성취를 누리는 시기에, 이웃과 민족을 향한 다니엘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2. 우리 민족이 눈물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떠나 잊고 지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다니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높아지고 커지는 것에만 관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재 위에 앉게 하소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당신께 더운 추수날의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 일

2020년 4월 1일(수)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말씀 묵상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5 개역개정)

한 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번 태어날 수 있는가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3:5).

거듭난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어떤 변화나 생활의 어떤 부분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홍 교수는 [남북통일을 향한 성경적 성찰]에서 남한 사회의 “반공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성경을 지극히 강조하던 한국교회가 남북의 문제를 말할 때만 되면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남과 북의 분단 역사 속에는 서로 죽이고 죽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응어리진 상처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또 북에서 표방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를 남한의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도홍 교수는 “한국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념은 인간 역사의 시대적 산물이며, 구원의 복음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이며 그러기에 복음의 관점에서 남북분단의 문제를 직시하며,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지를 마땅히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땅의 이념을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과 배척의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화주의자(peace maker)로 거듭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주십니까?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2.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거듭나야 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은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거듭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는 남북 분단의 세월 동안 휴전선과 이념의 테두리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올해 사순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 일

2020년 4월 2일(목)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입니다.

말씀 묵상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27-28, 31 개역개정)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1990년에 있었던 독일의 통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38선을 경계로 서로 비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은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눈물들이 모여 미움이 되었고 미움들이 모여 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민족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70년의 시간은 우리를 갈라놓았고 우리를 서로 원수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았던 “뜰이 장군”이라는 만화영화를 기억합니다. 그 만화에 보면 모든 북한 사람들은 늑대로 표현되고 북한의 지도자는 돼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한동안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늑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지요.

저는 2008년 남북평화통일 평양기도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이 평양 봉수교회에서 만나 남과 북이 각각 준비한 포도주와 빵을 섞어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던 일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이 한 떡과 포도주로 나누며 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미 통일을 경험한 것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이상 그들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험뜯고 비방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북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요?
2. 기독교인으로써 갈라진 남과 북을 하나로 잇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원수라 여기며 사랑하기 보다는 서로를 험뜯고 저주하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원수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일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 일

2020년 4월 3일(금)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

말씀 묵상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 11-12 개역개정)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는 몽골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족은 사실 인구수에 있어서 그리 큰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족은 소수민족, 그리고 약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몽골족은 거대한 중국대륙을 뛰어넘어, 이슬람권, 그리고 유럽까지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징기스칸의 몽골족은 소수이며,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버릴 것과 취하는 것에 있어서 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 두터운 갑옷, 긴 창, 활, 화살 등으로 중무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전투에 나설 때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는 복장, 활과 화살, 그리고 가벼운 칼로 무장했습니다. 언뜻 그런 가벼운 복장으로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가벼운 복장이 기동력을 증가시켜 중무장한 적군들을 쉽게 격파하며 승승장구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 투구, 그리고 무거운 칼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물뭍돌 몇 개만을 손에 움켜쥐고 중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하다>는 <버리다>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버릴 것을 잘 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한반도를 가리켜 거대한 화약고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지구 전체를 날려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와 절제, 거룩함으로 상징되는 이 경건한 절기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봅시다. 현재의 분단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은 각각 막대한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이 금쪽 같은 시간을 강제적인 전쟁 훈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당신이 지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옵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라인홀드 니버이 Serenity Prayer)

34 일

2020년 4월 4일(토)

통일은 꿈꾸는 데서부터

말씀 묵상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32 개역개정)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논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그저 작은 씨 하나를 심었을 뿐입니다.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과정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든 생명을 품어 안는 커다란 나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상상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 됩니다. 상상력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근거 없는 허황된 꿈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상입니다. 상상력은 믿음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는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상상할 때 보이기 시작하고 실체가 됩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상상력이 결핍된 사람들에 의해 그 세계는 심하게 축소됩니다. 문자주의에 갇힌 사람들에 의해, 산문으로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제한된 자기 경험으로만 세상과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삶과 신앙은 심하게 축소됩니다. 반대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대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산문이 아닌 시인의 언어를 통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 너머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 삶을 활짝 개방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됩니다.

통일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지금의 정세를 보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게 하는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부족한 상상력이 그분의 일을 막아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현실이 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작은 씨앗은 어떻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을까요?
2.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 상상력의 결핍이 가로막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을 심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 일

2020년 4월 6일(월)

이제는 평화할 때입니다.

말씀 묵상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 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1, 8 개역개정)

전도서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뿐 아니라 우리가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사건들이 모이고 그 사건들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이 모여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만년의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아직도 눈물 마르지 않은 역사는 바로 “분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한해, 남과 북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왔고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시민들 앞에서 평화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70년은 너무나 보잘 것 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5000년간 한민족이었는데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생활 습관이 같았던 가족이었는데, 70년의 시간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일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해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분단으로 가족들과 헤어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평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Prince of Peace)”(이사야 9:6)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아침에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이 자연과 인생의 법칙에 기한과 때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이제는 평화 할 때를 허락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인내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을 위한 기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사순절 아침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짧디 짧은 70년의 헤어짐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했고 너무나 많이 아파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평화할 때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맘속에 평화의 꿈을 통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 일

2020년 4월 7일(화)

제자라서

말씀 묵상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행전 9:10-11 개역개정)

다마스쿠스 ‘곧은 길’의 한 여관방 문을 잡고 있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방안에는 그 유명한 사울이 누워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에 책임이 큰 자. 그는 이번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셨지요. 그의 눈을 갑자기 멀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갔다(시편 6 편 10 절) 고 찬양이라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환상이 아나니아에게 내렸습니다.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고쳐주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지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합니다. “가거라 나에게 뜻이 있다...”

위대한 바울의 행보는 아나니아의 화해 사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원함과 복수로 지속되는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주님은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어려운 부탁을 들어 줄 사람은 제자 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크기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탁이기에 아나니아는 직가의 여관방 문을 엽니다. 앞 못보고 밥도 먹지 못하는 사울을 보며 긍휼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첫 마디가 놀랍습니다. ‘형제여’ (17 절)

원수로 지내던 두 자녀가 형제임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남과 북에도 오래된 원한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몹쓸 짓을 하며 지낸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가거라, 고쳐주어라, 다시 형제가 되어라”.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바울이 묵고 있는 여관방을 찾아가는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 아나니아처럼, 화해와 용서의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사랑과 화해의 영을 허락하소서. 자매와 형제가 화해하여 다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환상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닫힌 방문을 열고 원수되었던 사람을 만나 고쳐주고 안수하며 위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기대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 일

2020년 4월 8일(수)

화해는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세기 33:1-4 개역개정)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쌍둥이 형제, 원수가 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나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생 야곱은 늙은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 가로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 형제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을 피하여 외삼촌이 거주하는 멀고도 먼 밧단아람이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창 27 장)

야곱은 그곳에서 14 여년을 살면서 결혼하여 두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그리워 결국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압복강을 건넌 때 400 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형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때 형 에서가 달려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 야곱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야곱은 자신을 감싸준 에서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창 33 장)

한국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헤어져 원수처럼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제 2차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 가운데는 6.25 때 '의용군'으로 참전하면서 헤어진 후 반세기만에 고향을 찾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참전, 북한군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인물들 중에 신현문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충남 대덕이 고향으로 6.25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입대해 공로를 인정받았던 신현문(69)씨는 국군장교로 입대한 큰형과 총부리를 맞대야만 했습니다. 한편 평양을 찾은 남측의 이산가족 방문단 가운데는 늦어도 3개월 뒤면 복진해서 고향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에 1.4 후퇴 때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남하한 후 국군에 입대, 서부전선 전투에 참가했던 조순표(曹淳表, 76)씨도 있었습니다. 이날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분단의 아픔이 담긴 눈물을 한없이 쏟아 내었습니다. (연합 2000/12/01 자 요약)

서로 화해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화해는 다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화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 가족들 뿐 아니라 남과 북의 자매형제들이 자주 얼굴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 에서의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마음, 따뜻하게 환대하는 마음, 넓디넓은 너그러운 마음을 본 동생 야곱은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한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이산가족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이산 가족들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남과 북,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자주 만나고 얼굴을 마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산가족들이 자주 상봉, 서신 왕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화해와 평화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 일

2020년 4월 9일(목)

평화와 통일의 길을 내소서!

말씀 묵상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3:18-19 개역개정)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앗수리아 살만 에셀 3 세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남 유다는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에 의해 몰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18-19 의 말씀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 또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참으로 비극적이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국의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했으며,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의 원수가 되어 서로를 적대시 하며 서로의 몸과 가슴에 생채기 내며 70 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8 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서로 왕래하지 않던 비무장지대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군사도로가 생겼고 서로 포탄을 주고 받던 바다에 새로운 물길이 생겼습니다.

수치와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눈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서로를 생채기 내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말랐던 사막에 강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이 땅에 놓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조국의 통일 위해 기도하는 사순절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내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2.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조국이 갈라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진 땅에 화해의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평화와 통일의 물줄기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 일

2020년 4월 10일(금)

새로운 희망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말씀 묵상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 37-39 개역개정)

오늘은 성금요일(Good Friday)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캄캄한 어둠이 깔렸습니다. 세 시간 동안 질게 깔린 그 어둠의 순간 끝자락에 예수는 절규를 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캄캄한 절망의 순간, 완전히 버림받은 이의 외마디 절규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예수는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나버린 순간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그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동정이나 이해도 받지 못한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캄캄한 어둠과 외마디의 비명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순간,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린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장면을 전하는 말씀은 곧바로 이어 중요한 두 가지 장면을 전합니다.

첫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 칸막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기존의 질서가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형집행 현장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놀랍게도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던 현장에서는 예수께 열광했던 이들이 고난의 현장에서는 예수께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시선과 고백은 지금 순간부터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휘장이 찢겨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음을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들으면서, 분단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한반도의 예수를 그려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내 버려야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저마다의 이해와 요구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함부로 화해와 구원 사역을 폄하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한 담담한 고백을 드리는 백부장으로부터 예수의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는 요것 밖에는 안 된다는 자괴감,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 일

2020년 4월 11일(토)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말씀 묵상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6-8 개역개정)

예수님께서 부활 후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행 1:3]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드린 질문이 여럿 있었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단 한개의 질문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행 1:6]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제자들 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한 이후 페르시아와 그리스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63년 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멸시하던 에돔 족속을 왕으로 모시는 신세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라고 제자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질문에 답을 피하시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조한범의 글 '평화의 길 통일의 문'의 일부를 옮겨옵니다.

통일은 언제 됩니까?는 통일문제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이 질문 중에는 우리 스스로를 통일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미혼의 청년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저 언제 결혼하나요?'라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이 내 선택의 결과로 이뤄지며 통일 역시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투영해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조한범, 평화의 길 통일의 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두라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예수님의 뜻은 매우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증인들이 활동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는 암시가 거기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란 뜻도 거기 있습니다.

통일이 언제 됩니까? 이런 질문 대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통일을 이뤄가는 것은 분단된 나라에 사는 우리의 몫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듯 통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묵상을 위한 질문

1.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 복음의 증인으로, 평화의 사도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을 위한 기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정작 통일의 문제를 방관자처럼 보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듯 우리도 통일의 전도자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